

“어려운 시기, 일상으로 복귀에 힘이 되고자”

은행권, 태풍 ‘솔릭’ 피해 복구 위한 금융지원

은행권이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자금 확보나 피해복구 비용 부담이 큰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

지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만기 도래 차주는 원금 상환없이 대출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연체 이지는 면제된다. 신한은행도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개인대출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다. 피해 고객 중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와 만기연장 지원도 이뤄진다. 만기 연장 시 최고 1.0%p까지 금리가 감면된다.

우리은행도 태풍 피해 지역의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내의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상태 인정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1%p의 금리 감면이 적용되고, 예·적

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차주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이나 분할상환 납입일을 유예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고객에 금리,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태풍 피해현장 방문

전북농협(유재도 본부장)은 지난 24일 새벽 전북지역을 관통한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진안군의 사과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솔릭’의 영향으로 사과 추산지인(무주 장수 진안) 등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 이번 피해는 태풍이 북상하는 동안 강도가 약해져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은 피해이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된 폭염에 따른 일소피해에 낙과 피해까지 겹쳐 사과 재배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김형만 진안군지부장 신용빈 백운농협조합장과 함께 본격적인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낙과 피해를 입은 진안군 백운면 사과 재배농가(유근주 백운면 백암리)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 금융지원 재해복구 지원활동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신입행원 50명 채용... 31일 설명회

전북지역인재 70% 선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018년도 하반기 신입행원 50명을 채용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특히, 2017년 채용인원보다 30% 늘어난 규모로 최근 5년 이내 최대 규모다.

모집분야에는 ‘지역인재분야 일반인재분야 IT분야 통계분야’로 구분하고 전체 채용인원 중 전라북도 지역인재를 70%이상 채용한다.

또한, 오는 31일 ‘채용설명회’를 시작,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NCS직업기초능력평가)과 금융·경제·상식평가’ 면접 전형을 거쳐 10월말 최종 합격자를 받

표, 지난 6월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채용전 과정에 도입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준용 전북은행인사지원부장은 “전북은행은 정부의 주요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신규채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더 높이고, 지역 인재고용확대가 이번 채용의 큰 특징이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설명회’는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8월31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입행지원자를 위해 ‘은행소개 채용설명 전형별 준비전략 채용토크쇼 채용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될 것이다.

/김영태 기자



지난 23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제9회 생생 락 페스티벌’에서 전주 해성고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고교밴드 ‘꿈과 희망을 노래한다’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제9회 생생 락 페스티벌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3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제9회 생생 락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임용택 전북은행은행장, 김택곤 JTV전주방송사장’ 함께 멋진 기량을 선보인 도내 고교밴드 팀들과 2천여명의 고교생들과 함께 했다.

예선 통과한 도내 고교밴드 8개 팀은 교사와 함께 본선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고, 전주 해성고가 영예의 대상 완주교가 최우수상 전주 제일고가 우수상 전주여고 호남고가 인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JTV전주방송 특집 공개방송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지난해 오반빈첸 이리한 어린이 댄스팀 JTV원더키즈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연 고교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본선무대 준비 과정에서 서로 소통 화합하는 특별한 추억이 되었길 바라고, 앞

으로도 전북은행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생 락 페스티벌’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무대에 올라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경연대회로,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전북은행에서 매년 무료로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 가격 제대로 평가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치평가 규정을 개선하고 나선다. 국세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이 예상 가격에 팔리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 가격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시 적용하는 자본환원을 결정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입가격과 물납시 수납가격을 고려해 자본환원을 결정됐는데,

앞으로는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외부 평가기관이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매각 예정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하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단 기재부장관이 비상장증권 물납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물납증권의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